

---

# 2020년 제52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12. 18. ~ 12. 2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12. 18.	시청률	0.041

### 【총 평】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순발력 있게 소개하고 그 과제까지 점검한 기획이 탁월했다. 특히, 새해 경제정책의 방향과 핵심 내용을 각 부문별로 상세히 분석한 구성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2021년 경제정책 목표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으며, 내수경기 진작, 고용안정과 일자리 정책,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뉴딜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 시청자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변수인 코로나19 현황과 대응방안을 짚어보며, 방역 정체가 상황을 벗어가기 위해 사회적 경각심과 연대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뜰신잡은 '건강을 위한 채소조리법'을 소개해 주부시청자를 위한 유익한 건강정보였다.

### 【구성 및 내용】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밝힌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1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전망을 해본 시간으로 관련 분야별로 핵심내용을 추려서 설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내년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GDP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기저효과로 인해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아직 소비와 고용부분의 민생경제는 힘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재정이 적절히 투입되어야 하며, 더불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정부재정을 집중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더불어 정부, 한국은행 등에서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금융정책의 실물 부분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제와 방역간의 균형이 도모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방역 친화적인 내수활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선 방역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한 점도 좋았다. 그리고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소위 '전방위적 인센티브 제공'이란 이름으로 시행될 다양한 정책 수단을 소개했는데 '신용카드추가공제'와 '자동차 개별세 인하'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잘 정리했다.

알뜰신잡은 건강을 위한 채소 조리법으로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는 내용과 함께 조리 전 생채소의 올바른 세척방법, 생으로 먹을 때 몸에 좋은 채소, 영양소 파괴 없는 채소 조리법 등을 소개했다.

프로그램	KTV 온라인 세상		
방송일자	2020. 12. 18.	시청률	0.031

## 【총 평】

KTV 프로그램 중에서 이슈 부분, 영상부분, 베스트 부분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제작되었다. 정치, 문화, 예술 분야 등에 대한 이슈를 통한 정보제공과 집중효과로 지루하지 않게 편집되었다.

KTV 온라인 세상 '이슈 Q'는 최일구의 정말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내용은'을 소개했고, '베스트 Q'는 PD리포트 이슈 본의 '코로나19와 사람들', 온라인 베스트 픽은 '나태주 시인이 전하는 인사 한마디', 살어리랏다의 '술독에 빠진 그녀, 이예령 대표' 등을 방송했다.

## 【구성 및 내용】

### ■ 최일구의 정말(12월 17일 방송)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내용은?'

공수처장 추천위 개최 전망, 공수처법 통과와 공수처 출범, 공수처 연내 출범 가능성은 연내 무리지만 공수처장 인선은 가능할 것 등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편집하였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위한 오랜 숙원이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임을 역사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소식이었다.

### ■ PD리포트 이슈 본(12월 13일 방송) '코로나19와 사람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정부의 정례 브리핑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모든 국민 누구에게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야 하기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시기이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수어통역사 김동호'씨를 통해 수어통역사의 역할과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있고 중요한 일인지 알게 해 주었다. 수어를 하는 부분이 많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직업적 애로 사항도 공감할 수 있었다.

### ■ 온라인 베스트 픽(12월 12일 방송) '나태주 시인이 전하는 인사 한마디'

2020년 제 18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을 통해 마음 설레게 하는 단어를 잘 쓰는 시인의 시 쓰는 비결을 소개하고 시인은 글 속에 깊은 내면 성찰을 담아내야 진짜 시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태주 시인을 거치면 평범한 것도 특별해지는 시어들, 시인이 추천하는 시 등 나태주 시인만의 시어 세계를 알아가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 ■ 살어리랏다(11월 22일 방송) '술독에 빠진 그녀, 이예령 대표'

경기도 평택시 오송면에서 전통주를 만들고 있는 이예령 대표가 술독에 빠진 사연을 통해 청와대 행사 단골 술이 된 이야기, 깊은 술맛만큼 진한 주인공의 애정담긴 전통주 이야기, 기존 전통주보다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들여야 하는 전통주, 이예령 대표의 오양주 술이 특별한 이유 등을 소개했다. 통해 주인공의 성공과 전문성의 기반에는 '진정성'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게 했고 시청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12. 19.	시청률	0.011

### 【총 평】

올 한해 우리동네 개선문은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을 추적해 행정의 순기능을 널리 알려 정책 신뢰도를 제고했다. 제53회는 경북 영양군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노후 수로교 문제를 해결한 사례와 이천시 울면 총곡리와 음성군 원당리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경북 영양군 사례는 해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중재 역할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 등이 인상적이었다. 또, 민원 제기에서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정과 결과까지 충실하게 담아내 다른 지역사회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송이었다. 충북 음성군 원당리 가축분뇨처리시설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기능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고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 간 충분한 '사전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의미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경상북도 영양군 택전마을 입구 수로교는 23년이 되어 노후화가 심각했고 마을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수로교는 마을 앞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곳곳에 균열로 인해 해당 공무원도 보수보다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취재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한다는 기획의도에 부합했고, 주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문제 인식, 상황 파악, 해결 방안 제시 등 주민들 입장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담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또한, 영양군 택전마을 노후 수로교 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해결해낸 사례인데 과거 같으면 기관들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해결을 미뤘었던 관행을 깬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충북 음성군 원당리 가축분뇨처리시설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충북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2023년 충북 음성군 원당리에 세워질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넘비현상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음성군측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지역의 마을에 더 가까웠다. 이천시 총곡리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생겼고 음성군측에서는 이미 부지를 매입한 이상 친환경적 시설을 짓겠다는 약속과 함께 용량을 축소하는 등의 대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주재하며 가축분뇨처리장 조성을 반대하는 이천시 총곡 2리 주민들에게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조성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진행했고, 주민요구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5년간 주민협의체를 운영기로 한 조정안이 주민 설득의 결정적 요소였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12. 19.	시청률	0.019

### 【총 평】

‘비극의 출발점-보성지역 여순 사건’은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전남 보성군 일대를 중심으로 1948년대 민간인 집단 희생 참상을 당시 유족과 목격자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어 역사적 기록과 교훈을 남겼다.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보성군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에 대해 상수마을, 조성마을, 울어마을 등 각 피해마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또한 국가 권력의 잘못을 공식 인정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 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지원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소개돼 ‘진실에 대한 화해’를 부각했고, 현장탐방과 80대 후반 유족들을 찾아 생생한 증언을 듣는 인터뷰 중심으로 구성한 점이 다뤄성을 높였다.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그동안 은폐, 왜곡돼 있던 역사적 아픈 사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의해 바로잡혀진 역사적 진실을 영상기록을 통해 국민에 알려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 그리고 화해’를 모색하는 기획의도가 뛰어난 프로그램이다

### 【구성 및 내용】

해방 전후부터 한국전쟁기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태백산맥’의 주 무대인 보성군은 여순사건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으로 70년이 넘었지만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1948년 10월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 반대 시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군경은 강경한 진압에 나섰고 이에 보성군 등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을 소집하고 분류하기 시작하며, 반란군에게 협조하지 않았냐는 심문과 구타를 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의 후유증은 컸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보성지역 여순사건’의 실상을 피해자 유족들의 체험담을 통해 마치 눈앞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재현해냈다.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에게 과연 국가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설 ‘태백산맥’의 주 무대가 보성지역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시작했는데 시청자의 기억을 소환해 내용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도입이었다. 인터뷰에 나온 피해자 유족들이 비교적 담담하게 학살 당시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겪었을 아픈 기억과 상처가 더 강하게 전해지는 콘트라스트 효과가 있었다.

유족 중 한 사람인 김창렬 씨가 마구잡이 학살을 빚대서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반문하는 대목에서 국가는 어떻게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스스로 진실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찬식씨가 전해준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

특히,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개인을 조명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반성해 의미 있었고, 부끄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도 잘 드러났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2. 19.	시청률	0.026

### 【총 평】

경북 예천의 육지 속 섬마을을 휘감아 도는 회룡포 물길 풍경과 오랫동안 예천을 지켜온 나무 이야기를 담은 '겨울, 나무 이야기-경북 예천'을 방송했다. 깊숙한 내륙에 자리한 섬 같은 마을 회룡포의 겨울 풍경을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한적한 시골의 겨울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고, 장승을 만드는 작가를 만나고 그곳에서 나무를 통해 삶을 성찰하려는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국가지정 명승 16호로, 예천하면 떠오르는 회룡포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350도 휘돌아 나가는 육지 속의 섬마을이다. 물이 불으면 다리의 구멍위로 물이 뿜뿜 솟아오르는 모습을 비유한 뿜뿜다리와 내성천 물길 등 예천의 육지 속 섬의 풍광을 소개해 주었다. 또, 회룡포를 지나 긴 세월이 빚은 자연의 작품인 독특한 형상의 나무들이 우뚝 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은 회룡포 전경으로 시작해서 회룡포 지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뿜뿜다리를 직접 건너보며 느끼는 감정을 주로 다루었다. 또, 제재소로 이동해서 죽은 나무가 새롭게 가공되는 과정을 담아냈고 폐교를 단장한 작업실에서 장승을 조각하는 명인을 만나 장승이 제작되는 전 과정을 담아내고 나무가 주는 매력을 강조했다. 특히, 경북 예천의 육지 속 아름다운 섬과 나무라는 색다른 조합으로 구성한 점이 돋보였고,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회룡포의 지형을 상세히 설명해주며 이해를 도왔다.

언제나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해온 배우 김정균씨가 비옥한 회룡포의 아름다움을 연기자의 눈으로 그려내며, 경북 예천의 겨울바람과 겨울 공기를 달디 달고 맛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남다른 감성을 보여주었다. 그가 경북 예천 나무를 통해 비움과 겸손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됐다는 소감은 진정성 있었고,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예천하면 떠오르는 국가지정 명승 16호로 지정된 회룡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물돌이 지역이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350도 휘돌아 나가는 육지 속의 섬마을이다.

제재소에서는 나무를 가공하는 모습도 꽤 상세하게 담아냈는데 '죽은 나무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곳'이라고 표현이 기억에 남았다. 조각 과정에서 보통 전기톱 소리는 소리라기보다는 소음에 가까운데 장인의 작품 제작과정에서 나온 전기톱 소리는 마치 열정을 그대로 녹여놓은 것 같아 전혀 시끄럽지 않고 마치 음악소리처럼 들렸다. 또, 나무에 망치질을 하는 소리, 조각도로 나무를 깎아내는 소리 등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십분 살린 것 같다. 장승조각 명인은 자신의 작업 과정을 두고 '마음속에 담았던 처음의 장승의 모습을 깨워내는 작업일 뿐'이라는 표현에서 장인 정신을 느끼게 했고 나무를 깎아내면서 '지난 생이 한 꺼풀 한 꺼풀 벗겨진다.'라고 표현한 부분에서는 작가의 역량도 돋보였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2. 20.	시청률	0.000

### 【총 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야기된 경기 침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 습관과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소비행태를 보여줬다. ‘속고 사지마! 중고 거래 사기’는 새로운 소비행태로 불거진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사례와 법률적인 보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는 시간이었다. 중고 거래 피해로 인한 사기를 당한 후 자신의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소송 및 배상명령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쉽지 않음을 설명해 주었다. 지급명령제도는 복잡한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받고 강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을 알려주었다.

임대차법에 관한 사항에 있어 전월세 계약시 집의 상황에 관해 문제가 없음을 계약서에 한줄이라도 반드시 쓸 것을 권유하여 추후 분쟁사례에 대해 특약 사항을 활용해 적시할 것을 권하였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발맞춘 맞춤형 주제로 중고 거래 피해 대처법과 중고 거래 사기 예방법을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 방송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거래, 특히 온라인 중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사기도 다양하고 사기 수법도 지능적이다. ‘더치트(금융사기 방지서비스 앱)’에 의하면 11월 말 기준 중고 거래 사기 피해건수가 21만여 건, 피해금액은 1614억여 원에 이른다는 놀라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속고 사지마! 중고 거래 사기”는 새로운 소비 행태 중의 하나인 중고 거래로 인한 사기 문제를 다뤄 시청자들에게 사고 예방과 법률적인 도움을 주었다.

고등학생이 운동화를 구매하고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했는데 가해자가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후라 환불여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서 눈길을 끌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그리고 집행절차까지 자세하게 설명했고 배상명령제도나 강제 집행 절차 등에 대해 알려주었다. 가품 피해에 대한 사례에서는 상표권 위반혐의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다루었다.

안전 거래 링크로 유인해서 송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은 사례는 중고 거래 사기 순위 1순위라고 소개가 될 만큼 자주 등장하는 사기 유형이다. 지급 정지 명령은 개인 간 중고 거래 시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중고 거래의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침수차량 사기 피해 사례에서는 보험처리 이력이나 사고조회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했고,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무엇이든 물어 볼 법’에서는 집수리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사례가 소개됐는데, 임대차 권리 관계에서 월세와 전세가 차이가 없다는 점과 집의 하자에 대한 기록과 집주인에게의 연락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들은 유익한 정보였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2. 20.	시청률	0.088

### 【총 평】

‘깡산촌’의 살씨는 겨울은 산촌 귀농 10년차인 60대 초반 남성이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산나물을 재배 하며 여유를 만끽하는 일상을 펼쳐 코로나 바이러스에 시달리는 도시민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선사했다. 산에 퇴비주기, 전통 두부 만들기, 서울 친구 방문, 가족과의 단란한 생활, 멘토에게 농사 배우기, 산촌 자연인으로서의 소망 등을 다큐형식으로 담담히 그려내 몰입감과 흡인력을 높였다.

주인공의 확고한 생활철학과 신념이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났고 이를 통해 각박하게 생활하는 도시민들에게 느낌과 느긋함의 중요성을 알려 주었고 암투병 중인 아내와 곁을 지키는 남편, 딸과의 정겨운 대화에서 진한 가족 사랑을 일깨웠다.

### 【구성 및 내용】

깡산촌 소치마을에서 삶을 일궈가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과장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려냈고,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남은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전해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 방점을 찍은 구성의 흐름이 좋았고 그래서 내용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주인공의 밝고 건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자신이 산촌에서의 삶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대목에선 진솔하고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어 좋았다. 비료를 싣고 굴곡진 산길을 오를 때 여러 차례 트럭이 오르지 못하고 멈춰서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산촌에서의 농사가 녹녹치 않음을 잘 느낄 수 있었다.

이장 부인과 함께 두부를 만드는 대목은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친화력을 느낄 수 있었고, 바위에 앉아 ‘편지’라는 노래를 한 부분은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었다. 특히, 농촌 가정에서 전통 두부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 우리 농산물과 신토불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노년층에게는 추억을 소환하는 내용이 시선을 끌었고, 불러 놓은 콩을 갈고 저은 뒤 들기름과 간수를 넣고 누르기를 거쳐야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세하게 영상으로 그려졌다.

동이 틀 무렵, 외딴집 마당에서 불 피우고 생선 굽고 막걸리로 서울 친구들과 회포를 푸는 장면, 산골 계곡 아침 나들이, 파란 하늘, 계곡 물소리와 새소리 사운드가 절묘한 조화를 이뤄 그윽한 겨울 산골의 풍경이 제대로 그려졌다. 물소리 새소리 들으며 산으로 출근하는 생활에 만족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소박한 소망으로 산에서 자족하며 마치고가는 이야기가 강한 여운으로 다가왔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부분이 ‘특유의 여유로움, 자연을 즐기는 삶’에 있을 텐데 마침 농한기라서 이런 부분이 잘 담겼다. 방송 내용과 인물의 특징속에 ‘푸근하고 느긋한 매력’이 잘 담겨, 귀농귀촌에 대한 호감도를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됐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준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0. 12. 20.	시청률	0.008

### 【총 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계도 비대면 학습이라는 변화를 맞았다. 학교 교실에서면 대면으로 이뤄졌던 교육을 비대면 디지털 학습으로 교육해야 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흥미와 재미, 교육의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디지털 콘텐츠 교육기획자'의 세계를 알려주고 취업 정보를 다루었다.

'디지털콘텐츠 교육기획자'에 대해 소개한 기업은 학습 교재를 출판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상교육'이었다. 비상교육의 본부장이 출연하여 채용 정보를 알려주었고, 취업 1년차 선배가 출연해 '디지털콘텐츠 교육기획자'가 되는 취업정보와 직종 업무를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은 교과서 전시장에서부터 시작해 교과서의 역사를 살펴보고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가 하는 업무 소개와 회사 내부 소개를 주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취업 선배의 합격 비법을 주로 다루었고 취준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도 전달했다. 광주 마이스트고 학생을 대상으로 웹 기획자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요령도 알려주었다.

'달려라 신입사원'은 교과서 전시장에서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눈길을 끌었고 교과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준비하여 볼거리도 제공했다. 또한 시대별 교과서를 관찰하는 모습에서 교육 콘텐츠 기획자로서 막중한 사명감 또는 열정이 느껴졌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교과서로 패드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콘텐츠 기획으로 넘어온 점도 상당히 자연스러웠다. 회사 자료실로 이동해 비대면 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조금은 생소한 직종에 대한 소개가 직관적으로 잘 되었다.

'그 직종이 궁금하다'에서는 취업 선배가 전해주는 나의 취업 합격 비법 세 가지 나를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 있는 자소서 쓰기와 선배의 사례, 내 성향에 맞는 취업 방법 찾기와 스터디를 통한 자극과 격려, 작은 경험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업선배들의 공통점이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경우가 많아 취준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다.

'어서 와, 이런 면접은 처음이지?'는 광주 마이스트고 학생 두 명과 면접을 실시했는데, 먼저 선생님부터 연결해서 두 학생에 대한 인성과 전반적인 자질에 관한 소개가 있어 두 학생이 훨씬 부각되었고 왠지 믿음직스러웠다.

비상교육 본부장은 슬기로운 취준생활의 시작을 위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지, 꿈을 쫓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취준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언해 주었다.

<b>프로그램</b>	KTV 특별기획 기사회생 프로젝트 R 1부 - 'Remain' 주민의 손으로 기억하는 마을		
<b>방송일자</b>	<b>2020. 12. 21.</b>	<b>시청률</b>	<b>0.001</b>

### 【총 평】

기사회생 프로젝트 R 1부 - 'Remain' 주민 손으로 기억하는 마을' 편에서는 개발과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마을과 지역에 대한 기록을 주민 스스로 공유하고 보존해 지역의 문화와 스토리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제로 내세운 기획성과 시의성이 뛰어났다. 특히,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역할과 기대효과를 얻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탐색한 구성이 시청자 이해를 도왔다.

역사를 기록하고 삶을 복원하는 기사회생 프로젝트 아키비스트인 김시동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대표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손으로 기억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한 기획과 구성이 돋보였다. 증평기록관의 설립 동기와 운영, 기록물 전시 내용, 주민 반응과 활용도를 알아보고, 학교앨범 수집, 80세 노인 그림 전시, 지역 아카이브 기획전, 사북 탄광촌 마을 기록, 학성동 40계단 스토리 등 상세한 사례 제시가 시청자 이해를 도왔다.

### 【구성 및 내용】

지역의 문화와 삶의 과정을 보존하는 지역 아카이브는 시대적, 사회적 과제이며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스토리 자원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을 기록과 문화공유 활동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기억을 남겨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이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과 현장의 기억을 기록하는 작업을 소개해 삶의 기억이 마을의 기록이 되고 한 지역의 역사가 만들어져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김시동 대표의 이야기와 음성기록관 견학, 그리고 원주 학성동 현장기록 활동 등 모든 구성 요소들을 촘촘하게 배열해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

증평기록관은 지자체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관으로 증평 지역의 역사를 기록과 자료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증평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애정을 갖고 노력하여 마을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김시동 대표가 증평기록관 곳곳을 소개하며 사진의 기록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가치를 알 수 있었다.

김시동 대표가 "기록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고 공동체가 더불어 발전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역아카이브' 활동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였다. 지금까지의 지역의 역사는 주민들 개개인의 삶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행정 주체인 관이 기록한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지역아카이브' 활동이 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역설적으로 잘 말해줬다고 생각한다. 충북 음성군에서 운영 중인 '음성기록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했는데, 그 취지나 전시된 내용으로 볼 때 확산시킬 만한 가치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자극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